

내신 최하위의 변호사시험 합격수기!

김 승 현

- 부산 용인고등학교 졸업
- 한양대학교 법대 법학과 졸업
-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제7회(2018년) 변호사시험 합격



I. 글을 시작하면서

법학전문대학원 2학년이 끝나고 변호사시험을 응시하는 선배들을 보면서 느꼈던 막막함이 엇그제 같습니다. 3학년에 진학하고서도 변호사시험의 과목별 배점이나 문항 수조차 몰라서 막막했던 그 날이 떠오릅니다. 이 글이 변호사시험을 준비하시는 저와 같은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법학사입니다. 법학사라는 말을 보고 '아, 이 사람은 학부 때 공부를 했으니 법학을 잘 알거야.'라는 선입관을 가지신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총 6학기의 대학원 시험, 소위 내신의 결과는 위와 같은 선입관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증명합니다. 내신 성적은 보통 70명 중 50등 정도를 맴돌았으며, 어떤 학기에는 70등

언저리를 맴돌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제 경험은 누구에게나 유의미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II. 과연 어떤 책을 보았을까요?

시험이 끝난 후 다른 기수로 법학전문대학원을 입학한 친구들이 어떻게 공부해야하느냐고 물어오면서 우선하는 질문이 이것입니다.

어떤 책을 보면서 공부해야 할지, 이 질문은 시험이 끝나는 그날까지 계속되는 질문입니다. 저는 3학년 한 해 동안은 '변사기 사례기출'과 '레인보우 기출문제 OX', 진도별로 정리된 객관식 기출문제, 그리고 각 과목의 기록형 기출문제집을 보았습니다. 추가적으로 헌법 핵심정리 300을 헌법 문구 암기용으로 보았습니다. 그 외에는 학교특강에서 제공하는 프린트물(소

위 짜라시)을 참고하였습니다.

교과서를 보지 않았냐는 질문도 자주 들었습니다. 1, 2학년엔 교과서 혹은 강사저 기본서만 보았습니다. 3학년엔 위 문제집만을 보았습니다.

Ⅲ. 문제집을 선택한 특별한 이유

수험서를 바꾸지 않고 ‘변사기 사례기출’과 ‘레인보우 기출문제 OX’ 이 두 종류의 책을 잡은 이유는 별개 아니었습니다. 하나는, 스테디를 구성해 주시고 이끌어준 형이 추천한 책이었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다른 책을 볼 여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법학전문대학원 2월에 첫 모의고사를 봅니다. 학교는 잔인하게도 모의고사 결과를 익명으로 법학전문대학원 게시판 곳곳에 게시했습니다. 개별적으로 통보 받은 모의고사 성적으로 자신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첫 모의고사의 결과를 보며 앞으로 공부해야 할 분량이 까마득함을 느꼈습니다. 후에 같이 스테디를 시작한 형에게 이 점수를 보여준 후의 평가는 그저 ‘총체적 난국’으로 요약할 수 있었습니다. 시험에 나올 것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공부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른 책을 본다거나 다른 방향으로 공부를 새로 한다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Ⅳ. 어떻게 공부하였을까요?

지금에서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공부를 할 때엔 무작정 열심히 보다 계획이 우선임을. 공부를 많이 해보신 분이라면 새삼 무슨 소리를 하냐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나 저 같은 분들이 있을까 봐 다시 강조하고 싶습니다. 일단 열심히 보다 장기, 중기, 단기의 계획을 세우고 공부를 시작하는게 좋다는 것ですよ.

저는 계획을 세워서 공부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도표를 그려 계획을 세울 수 없었습니다. 그저 이 책을 5번 보면 확실히 아는 것은 쓰고, 7번 보면 본 것은 쓸 수 있고, 10번을 보면 함정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스스로 가정하며 계획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1월에 있는 시험 직전까지 위에 정한 사례형과 객관식 수험서를 6~8회 가량 보는 것을 목표로 장기계획을 정하였습니다. 중기 계획으로는 2개월에 한 번씩 있는 모의고사 일정에 맞추어 직전 모의고사가 끝난 후부터 다음 모의고사 기간까지 1~2번씩은 수험서를 보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단기계획은 주 단위 혹은 보름 단위로 진도를 잡았습니다.

이렇게 계획을 잡을 때, 항상 머리속에서 떠나지 않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내가 세운 계획이 과연 수험에 적합한가. 한 시간에 30페이지를 보면 잘 본 것인지, 오늘 내가 50페이지 밖에 못 봤는데 이러면 너무 뒤쳐지지는 않는지, 보름이 지나가도 책 한 권을 못 끝냈는데 어떻하나 등등의 생각이 그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주변에 하면 돌아오는 대답은 비슷했습니다.

“그냥 열심히 하면 된다.”, “오늘 열심히 했다면 그것으로 된거다.”, “진도는 중요하지 않다.” 등 등

지금에선 그 대답 외에는 “얼마나 보아야 하는가?”라는 부류의 질문에 답할 것이 마땅치 않다는 것을 압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 질문은 “내 계획이 적당한가요?” 하는 질문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계획의 좋고 나쁨을 판단하는 기준은 자신의 성향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자신이 여러 번 보기보다 한번을 꼼꼼히 봐야 이해가 된다면 책을 읽는 횟수, 소위 회독수를 줄이고 회독기간을 늘이는게 좋을 것입니다. 자신은 꼼꼼히 보다 자주 많이 봐

야하는 경향이 있다면 회독기간을 줄이고 회독수를 늘리면 좋을 것입니다. 이런 예시와 같은 기준을 두고 자신의 계획을 판단하고, 그것을 현실과의 피드백을 통해 적절히 수정해 나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경험에 있어, 제 성향은 10회독을 하면 잘 아는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10회독, 못해도 7~8회독은 본다고 이상과 같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2회독까지는 회독속도가 줄지 않는다는 경험을 고려하여 계획을 세웠습니다. 예컨대, 행정법, 민사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 등은 위 사례문제집을 1회독하는데 2주 정도를 배정하였습니다. 상법과 헌법은 3주, 민법은 4주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물론 계획과 현실은 자주 달라지곤 했습니다. 4주로 잡았던 민법이 8주 동안 다 못보는 경우가 생기거나 2주를 정한 형법을 4주 동안 봐야하는 경우가 생기곤 했습니다. 그런 차이가 생기면 중기계획을 수정하고 휴식일로 정한 날에 나와서 공부를 했습니다.

변호사시험을 치러 가기 직전에는 7과목의 변사기 사례기출과 레인보우 OX 문제집을 적어도 10회 이상 보는데 성공했습니다. 이 방식을 통해 변호사시험 합격이라는 결과를 얻은 것을 보면 적어도 이 방식이 그릇된 방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변호사시험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기에 저같이 3학년에 와서 수험을 시작한 절박한 상황이 아니라면 1, 2학년 때 미리 교과서를 정독하면서 기초를 탄탄히 다져놓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공부를 하던 중 3학년 2학기에 와서 경험했던, 어떤 좌절감에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그리고 주변에게 한 것이 기억납니다.

“어느 정도 해야 공부가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스터디에서 많이 반복했던 개념을 또 잊어서 편지를 들고 난 후의 질문이었습니다. 몇 번이고 같은 책을 읽다 보니 그 책이 너무나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이틀정도 만에 책을 다 넘기면서 대충 이걸 다 알지 하고 넘겼습니다. 네, 저 ‘대충’이란 말 때문에 ‘어제 한 건데 또 까먹었냐’는 편지를 듣게 된 것이죠.

전 수험 법학에서 만큼은 ‘이해’와 ‘암기’가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집의 문제를 보면 최소 너댓번은 본 문제이기에 문제를 읽으면서 문장 문장에서 논점이 무엇인지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논점을 판례나 교과서의 정의와 같은 수준으로 암기해서 서술하는 것은 다른 문제였습니다. 회독수를 무작정 늘리는 것이 암기를 보장해주진 않았습니다. 회독수를 늘려서 이해하고 흐름을 아는 만큼, 세부적인 내용의 암기는 따로 했었어야 했습니다. 어느 정도 해야 공부가 된 것인가는 익숙한 문제라도 논점을 정확히 떠올리고 그 논점에 따른 판례와 개념을 머릿속에서나마 문장으로 말할 수 있을 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처럼 회독수가 많다고 뿌듯해 하기만 하고 암기를 소홀히 하실 분이 있을까 봐 침언했습니다.

V. 얼마나 공부를 하였을까요?

3학년 수험생활 중에서도 하루에 몇시간을 공부 했는가는 저녁 늦게 집에 가는 길이 얼마나 뿌듯할 수 있는가의 척도였습니다. 그렇기에 얼마나 공부 했는가는 저에게 있어서는 공부를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저는 새벽형 인간인가 올빼미형 인간인가로 분류 한다면 올빼미형 인간에 속합니다. 저는 아침잠이 많아 일찍 일어나기 힘들고, 잠이 부족하면 하루 종일 머리가 둔하게 돌아가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렇기에 집중해서 공부하는

시간은 저녁을 먹고 해가 진 후로 정했습니다. 3학년에도 12학점 내외를 신청하여 오전 오후에는 강의가 있었기에 오롯이 부족한 과목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7시 전후부터였습니다. 자정 전후까지 도서관에 남아있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그 이후는 고라니와 너구리가 위협하는 어두운 길을 걸어갈 용기가 없었기에 부족한 부분은 집에서 마무리 한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식후 식곤증이 오는 시간을 제하면 평일은 4시간 정도 순수하게 수험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이것은 초기에나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4시간 정도의 시간은 계획한 진도를 따라가기 터무니 없이 부족한 시간이었습니다. 계획한 바가 있으니 진도가 밀리는 것은 큰 스트레스였고, 그것을 피하기 위해 서라도 오전 오후 비는 시간이라면 진도를 맞추기 위해 틈새 시간이라도 집중하여 공부하였습니다.

하루에 얼마나 공부하는가 같은 질문은 정신적 만족을 위해선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공부 시간보다 계획한 목표와 진도에 얼마나 열심히 따라가느냐 하는 질문이 실력을 증가시키는데 더 도움이 되었습니다.

3학년 들어 본격적인 수험을 시작하며 주 7일 공부도 해봤고, 주 6일을 모두 진도계획에 넣고 공부하는 것도 시도해 보았습니다. 적어도 저에게 있어서는 주 7일을 모두 공부할 경우 그 다음주에 현저히 집중력과 체력이 떨어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 경험을 토대로 주 5일은 계획한 진도를 따라가는데 최선을 다하고 주중 하루는 부족한 진도를 채우는 날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한주에 하루는 공부를 하지 않고 쉬었습니다. 저는 쉬는 날을 토요일로 정하고 토요일은 운동이나 게임을 하며 잠시 공

부로부터 해방된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만 하루의 휴식을 주지 않고 한주 내내 공부해도 집중력을 잃지 않는 원우도 보긴 했습니다. 그 원우는 굉장히 예외적인 존재이므로 따라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하간 수험생활 초기에 자신을 잘 파악해서 수험생활 내내 유지할 공부습관을 만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VI. 수험의 방향

저의 공부를 도와준 선배님의 분류에 따르면 변호사시험 공부방법으로 크게 사례과와 객관식과가 나뉜다고 합니다. 사례형 공부를 중점적으로 하여 그 범위를 점차 넓혀 객관식도 어느 정도 잡을 것인지, 객관식에 집중하여 객관식 점수를 확실히 한 후 사례서술 실력을 넓혀 나갈 것인지 하는 순서에 따른 분류입니다. 어느 쪽이던 장단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례형 공부방법을 택했습니다. 사례형 공부방법의 장점은 객관식에 비해 시작할 때의 공부량이 상대적으로 적으며, 이야기 중심의 공부방법으로 법학의 틀을 잡기에 유리하다고 합니다. 법학을 배우며 난감해지는 부분인 학설대립의 경우에도 사례 중심으로 공부를 하면서 학설대립의 원인과 근거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 객관식형 공부방법은 이미 1, 2학년 때 공부를 충실히 하여 틀이 잡힌 분들에게 유리하다고 합니다.

다만 어떤 방식으로 공부할지는 다시 강조하지만 순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례형 공부방법을 택했다고 했지만, 기출사례집을 꼼꼼히 공부하면서도 객관식을 대비해 OX문제집 또한 놓지 않고 반복하여 보았습니다.

VII. 각 유형별 공부방법론

수많은 공부방법이 있겠지만, 이렇게 해도 변호사시험을 합격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보아 주셨으면 합니다. 어떤 특별한 공부방법을 선택했다기보다 부족한 부분을 찾고 어떻게든 그 부분을 보완하여 시험장까지 간다는 생각으로 공부하였습니다.

1. 객관식(선택형)의 경우

객관식 공부는 처음에 유니온 기출사례문제집을 통해서 시작했습니다. 충분히 좋은 문제집이고 이 문제집을 통해 객관식 고득점을 받은 원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다만 기초가 부족한 저에게는 문제되는 판례나 이론을 정리하기 힘든 책이었습니다.

4월 즈음에 레인보우 OX문제집으로 교체하였습니다. 객관식 지문을 목차별로 잘 정리되어 있고, 교과서가 없는 저의 입장상 교과서를 어느 정도 대체할 수 있을 정도의 판례와 이론이 있었습니다. OX를 맞춘다는 것은 객관식 문제를 통으로 푸는 것보다는 덜 긴장하며 어느 정도 재미가 있었습니다.

문제를 푸는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린 분들은 따로 시간을 내어 공법 객관식 40문제, 형사법 객관식 40문제, 민사법 객관식 70문제를 마킹하는 시간을 제하고 제시간에 풀어보는 연습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의고사를 칠 때 객관식 시험에서 시간이 부족한 경험을 거의 하지 못해서 상대적으로 시간배분 연습을 덜 했습니다. 실제 시험에서는 긴장해서 그런지 모의고사보다 좀 더 촉박함을 느끼며 객관식 시험을 끝냈습니다.

이제는 대부분이 그 중요성을 인정하는 3개년 최신판례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10월 모의고사를 끝낸 뒤 3개월

동안 3개년 최신판례에 집중하였습니다. 선배나 동기 원우분들이 3개년 최신판례에서 기출이 많이 된다는 이야기를 믿고 나를 최선을 다해서 공부했습니다. 실제 시험장에서 객관식 시험을 치는 중에 최신판례에서 기출이 많이 되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객관식 뿐만 아니라 사례형, 기록형에서도 최신판례는 중요하겠지만, 특히 객관식 시험에선 최신판례가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 사례형의 경우

사례형은 위의 번사기 사례기출을 열심히 보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을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그 외에는 기출문제를 내어주고 제 시간에 기출문제를 직접 풀어보고 교수님이 첨삭하는 강의가 무척 도움이 되었습니다. 채점하는 분들은 결국 교수님 이기에 교수님이 어떤 부분에서 점수를 주고 어떤 부분에서 점수를 주지 않는지 감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점이 좋았습니다.

판례에서 정형화된 문구나 적법요건 등은 반드시 꼼꼼히 외을 필요가 있습니다. 선배들이나 주변에 성적이 좋은 형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냐고 물으면 반드시 적법요건을 꼼꼼히 외웠는가, 어떠한 판례문구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가를 되물었습니다. 채점하시는 교수님께 좋은 인상을 주고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는 정형화된 판례 문구는 꼼꼼히 암기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3. 기록형의 경우

기록형 시험의 경우 변호사시험을 치러가는 직전까지 많은 고민과 고통을 주던 과목이었습니다. 성적이 좋게 나오건 나쁘게 나오건 왜 이 성적이 나왔는지 잘 분석이 되지 않았습니다.

눈치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머리가 나쁜 탓인지 형사기록형 시험은 변호사시험장을 가셔도 발목을 잡았습니다.

형사기록형은 학교 기록형 수업과 형사재판 실무과목, 검찰실무 과목을 통해 연습하였습니다. 다른 원우의 경우 핵심형사기록이라는 책으로 형사기록형 시험을 공부한 후 고득점을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시간이 부족해 그 책을 발췌하여 일부분만을 보았을 뿐이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민사기록형의 경우, 교내 채점 결과에서 6월 모의고사에서 175점 만점의 민사기록형에서 원점수로 30점 대를 얻었습니다. 10월 모의고사에서는 원점수로 90점 이상의 점수를 얻었습니다. 이렇게 점수를 끌어올린 배경에는 7월부터 시작한 민법공부의 성과와 함께 한주에 한번은 민사기록 기출문제를 풀어보고 그 중 한두개는 첨삭을 받았는데 있지 않은가 합니다.

기록형 점수는 고득점을 받는 분께 물어보아도 기출문제를 반복해서 풀어 요령을 익히는 것과 기본적인 법학지식을 늘리는 방법이 왕도라고 합니다.

VIII. 마치면서

한 때 『考試界』의 합격수기 부분만 보며 시험에 합격하는 상상을 하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공부를 시작 할 때나 공부 중간 막막할 때 합격기를 여러 번 읽었습니다. 그 기억이 떠올라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공부할 때 느끼는 고민이나 갈등을 더 적고 싶었습니다.

아주 부족한 글솜씨나마 저와 같은 고민을 하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이 힘든 수험생활을 거치고 다시 사회로 나와 변호사로서 공동체의 권익과 정의로움을 위해 노력하시는 모습을 상상하며 이만 글을 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